

한국적 고전이 살아 숨쉬는 신구상주의적 작품

- 인간의 내면에 산재해 있는 진실의 탐구에 따른 미의 승화는 예술적 표현을 빌려 우리의 공간에 살아나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미의 본질은 모두 같다고 한다.

1. 한국적인 감성과 국제 언어의 가능성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세계에 내어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세계에 내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세계인이 보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서 먼저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만들 수 있고 주변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약간의 잔재주를 얹어 보여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국인이 세계에 내어 보일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체질에서, 혹은 혈통에서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숙자의 최근 작품들은 소재나 표현방법, 단색조의 여백이 느껴지는 화면구성과 표현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창작품이다. 우리의 내면에서 표출되는 감성과 우리의 전통에서 살아 숨쉬는 오늘이 국제적 언어로 세계인에게 어필될 때 이것이 한국적 아닐까? 그런 점에서 공숙자의 작품은 더욱 친근감이 가고 앞으로의 새로운 작품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 한 작품의 내용은 그 작가의 표현 의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지각 (perception)의 세계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인간의 경험과 정서의 영역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다.

2. 지각의 변화와 창조적 가치의 표현

“작가의 첫 조건의 하나는 “개척자” 이어야 한다” 고 스와니는 말하였다. 작가의 창조적 가치는 그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재료와 법칙에 맞추어 그가 내세운 주장의 참신함과 개성에 따라 저울질 된다고 한다.

인간은 그리고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다. 굉장한 속도로 변한다. 예술도 변하고 있고,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창작품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피카소도 그렇고, 유명한 현대 작가들이 한결같이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훌륭한 작품들은 탄생시켰다. 작가들의 변화는 주체성이 없어서가 아니다. 자기의 내면에 있는 지각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 작품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공숙자의 이번 전시 출품작들 또한 격동적인 변화를 겪은 결과물들이다. 이전의 구상적인 정물, 풍경 등은 상당히 고전적인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요즈음 작품은 이전의 유화작품들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새로운 소재의 채택과 수많은 실험을 통해 진화되어 가는 표현 기법은 작가가 바라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의 산물인 듯하다. 물론 전통적인 칠을 이용한 요즈음의 작품도 소재는 다르나 과거 작품들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이 더욱 새롭게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술가가 겪은 지각(perception)의 변화와 그로 인한 창조적 가치 때문일 터이다.

- 글로벌화된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적 정서와 민족적 전통을 바탕으로 독자적 화풍을 정립, 현대적 표현감각으로 창작하는 것이 진정한 오늘의 세계화된 우리의 미술이다.

3. 이지적 조형 질서와 객관적 개념화

신구상파 (The New Constructivist): 이들의 작품을 구상파라 부르는 까닭은 형태에 있어서나 새 재료의 사용법에 있어서나 20 세기 초의 구상파와 관련을 가졌기 때문이다. 작가의 의도는 일체의 기존 형태나 복합체에 관계없는 하나의 구체적 물체를 창조하는 데 있다. 이 파의 화가들은 특수 형태의 캔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며, 이로써 이젤 회화의 개념을 타파하는데 이바지했다.

최근의 작품들을 구태여 분류한다면 신구상주의적 이라고 말하고 싶다. Minimal 이나 Reductive 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작품에서 풍기는 기류는 다분히 신구상파에 속한다. 기법이나 소재 역시 기존 회화의 캔버스나 붓 칠을 떠나 한국의 전통적인 나전칠기의 기법을 이용하고 표현되는 작품의 내용도 모든 색을 배제한 검은 바탕에 금색이나 은색의 monochrome 한 화면 구성이 이지적인 조형 질서에 의한 신구상적인 객관적 개념화 작품들이다.

공숙자는 나와 오래전부터 미술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항상 느낀 점은 상당히 건실하면서도 소박하며, 그림에 대한 도전과 창작 욕심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품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위대한 예술품에는 새롭고 독특한 것이 표현되어 왔다고 한다. 어느 評者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작가가 소재나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체험과 재료를 형태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이 절실하다고 했다.

부디 이번 작품 발표가 성공리에 마치길 빌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새로운 창작품을 많이 보여주길 바란다. 끝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옮기며 마치고자 한다.

“예술은 예술가 자신의 정력과 의욕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화가들은 자유로울수록 보다 많은 고뇌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뇌를 통해서만 위대함에 접근되어지는 것이다.”

민병각 (서양화가, 국제미술위원회 회장)